

예비적 고려사항

- 제1장 연구접근의 선택
- 제2장 문헌 고찰
- 제3장 이론의 활용
- 제4장 글쓰기 전략과 윤리적 고려사항

이 책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1부에서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설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예비적 고려사항들은 적절한 연구설계법을 선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 있는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어떤 이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좋은 글쓰기 전략을 채택하고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접근은 광범위한 가정(假定)에서부터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에 이르는 연구의 절차와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포함하며, 그런 결정은 우리(역주-이하 본문에서 우리란 이 책의 저자를 가리킴)가 이해하고 있는 순서나 여기에서 제안하는 순서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내릴 결정사항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사항이란 연구자가 연구에 사용하게 될 철학적 가정인 (연구설계라 불리는) 탐구 절차, 자료를 수집할 특정 **연구방법**, 분석과 해석이다. 또한 연구접근을 선택할 때 다루는 **연구문제**나 이슈의 성격,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연구물의 독자도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연구접근', '연구설계', '연구방법'의 세 용어가 핵심인데, 이들은 연구의 광범위한 구성부터 방법의 절차에 이르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연구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세 가지 접근

이 책에서는 (1) 질적 방법, (2) 양적 방법, (3) 혼합적 방법의 세 가지 연구접근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처음 보는 것처럼 별개로 분리되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엄격하고 구별되는 범주, 정반대의 접근으로 보거나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 접근은 하나의 연속체 위에서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Creswell, 2015; Newman & Benz, 1998). 하나의 연구는 양적이기보다 질적일 수 있고, 그 반대로 질적이기보다는 양적일 수 있다. **혼합적 연구**는 이 연속체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왜냐하면 이 방법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모든 요소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구별은 숫자(양적)보다는 어휘(질적)를 사용하여 구성하는지 또는 개방형 질문(질적 면접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양적 가설)을 사용하여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방법 간 차이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이용하는 기본 철학적 가정,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전략의 유형(예 :

양적 실험이나 질적 사례연구),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이용하는 특정 방법(예 : 양적 자료는 도구로 수집하는 데 비해 질적 자료는 하나의 상황을 관찰하여 수집함)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두 접근은 역사적으로 진화했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형식은 양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혼합적 연구가 발달하였다. 이런 배경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용어의 정의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사회적 또는 인간적 문제 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다. 연구 과정은 질문의 생성과 절차, 연구참여자의 상황에서 자료 수집, 특정 주제에서 보편적 주제까지 자료의 귀납적 분석, 자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거친다. 최종 보고서는 융통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탐구 형태를 선호하는 연구자는 귀납적 양식, 개별적 의미에 초점 두기, 복잡한 상황의 묘사를 중요시하는 연구를 살펴보는 방법을 지지한다.
- 양적 연구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 이론을 검증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변인은 대체로 검사도구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량적 자료가 통계적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최종 작성된 보고서는 서론, 문헌과 이론, 방법, 결과, 논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 질적 연구처럼 이러한 탐구 형태를 선호하는 연구자는 편견을 경계하면서 연역적으로 검증 이론에 관해 가정하고, 대안적 설명을 통제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반복할 수 있다.
- 혼합적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두 가지 형식의 자료를 통합하며, 철학적 가정과 이론적 틀을 포함하는 다른 설계를 이용하여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탐구 형식의 핵심 가정은 독자적 접근보다는 연구문제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결합이다.

이러한 정의는 각각의 연구방법에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의 의미가 독자에게 명확해지도록 정의의 일부를 논의할 것이다.

연구접근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

각 정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연구에 대한 접근이 철학적 가정은 물론 별개의 방법이나 절차를 지닌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연구접근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나 연구계획서로서 철학, 연구설계, 특정한 방법이 교차되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고 이용한 틀은 그림 1.1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자는 연구에 이용할 철학적인 세계관 가정, 이러한 세계관과 연관된 연구설계, 접근을 실천할 구체적인 연구절차나 방법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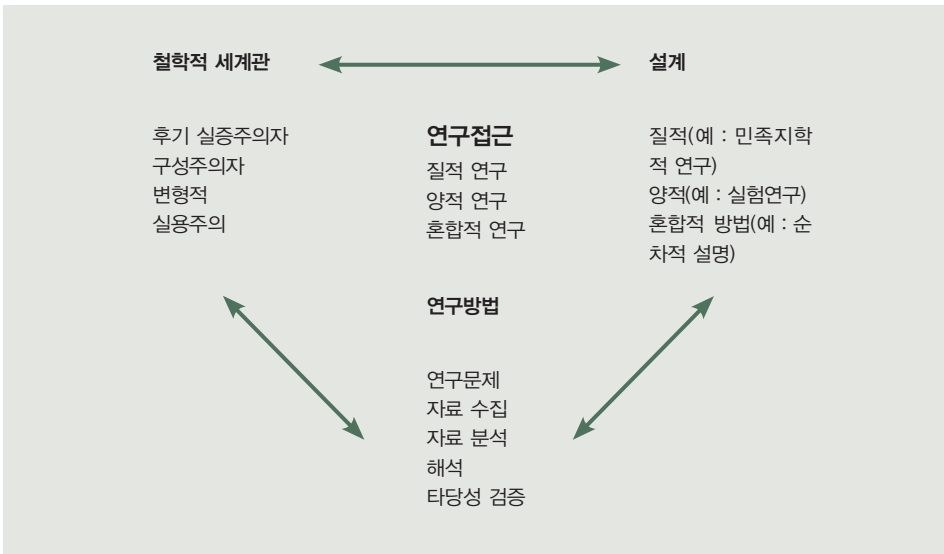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를 위한 틀 : 철학적 세계관, 설계, 연구방법의 상호 연관성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관념들은 대부분 연구 안에 감춰져 있지만(Sliffe & Williams, 1995) 여전히 연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준비 중인 자들이 지지하는 보다 큰 철학적 관념을 명백히 밝힐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어째서 자신의 연구를 위해 질적 접근, 양적 접근, 혼합적 접근을 채택했는지 설명이 될 것이다. 세계관에 관해 서술할 때 연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는 절을 포함할 수 있다.

- 연구에서 제안하는 철학적 세계관
- 그 세계관의 기본적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
- 그 세계관이 연구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을 형성하는 방법

우리는 세계관이란 용어를 “행위를 이끄는 일련의 기본적인 신념”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Guba, 1990, p. 17). 다른 이들은 이를 패러다임(Lincoln, Lynham, & Guba, 2011; Mertens, 2010), 인식론과 존재론(Crotty, 1998), 혹은 광범위하게 인지된 연구방법론(Neuman, 2009)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세계관을 연구자가 갖고 있는 연구의 특성과 세계에 관한 일반적인 철학적 방침으로 본다. 세계관은 훈련방침, 학생의 조언자와 멘토의 성향, 과거 연구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이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개인 신념의 유형에 따라 양적 접근, 질적 접근, 혼합적 접근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연구자가 탐구할 때 어떤 세계관 또는 신념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문헌에서 폭넓게 논의된 네 가지의 세계관, 즉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변형적, **실용주의**를 조명할 것이다. 각 입장의 주요 요소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후기 실증주의자의 세계관

후기 실증주의자의 가정은 연구의 전통적 형태로 표현되어 왔고, 이 가정은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에 더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계관은 때때로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 또는 과학 연구(science research)하기라고 부른다. 또한 실

표 1.1 네 가지 세계관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 환원주의 • 경험적 관찰과 측정 • 이론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미 구성 • 사회적·역사적인 구성 • 이론 생성
변형적	실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 권한 부여와 이슈 지향적 • 협력적 • 변화 지향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결과 • 문제 중심적 • 다원적 • 현실세계의 실천 지향적

증주의자/후기 실증주의자 연구, 경험과학, 후기 실증주의라고도 부른다. 마지막 용어가 후기 실증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실증주의 이후의 사고를 나타내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변화를 보이며(Phillips & Burbules, 2000),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연구할 때 우리의 지식 주장에 대하여 ‘실증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후기 실증주의자의 전통은 Comte, Mill, Durkheim, Newton, Locke(Smith, 1983)와 같은 19세기의 작가에서 시작되었고, Phillips와 Burbules(2000)와 같은 최신 저자들로 이어졌다.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대체로) 어떤 효과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결정론적인 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후기 실증주의자가 연구하는 문제는 실험에서 검증되는 문제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가설과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인과 같이 검증 가능한, 작고 분리된 일련의 아이디어로 환원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이다. 후기 실증주의자의 시각을 통해 개발되는 지식은 ‘세상의 저쪽’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재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찰과 측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에 관한 수량적 측정을 개발하고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후기 실증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후기 실증주의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론을 검증하고 정당화하거나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기 실증주의자가 받아들이는 연구접근으로서 과학적인 방법

에서는 연구자는 이론으로 시작하고, 그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고 추가 검사를 한다.

Phillips와 Burbules(2000)의 저서에서 이러한 입장의 주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지식이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반기초적이기도 하다). 즉 절대적 진리란 결코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에서 확립된 증거는 항상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가설을 증명할 수 없고, 대신에 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뿐이다.
2. 연구는 주장을 만든 다음, 보다 강력한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 주장의 일부를 정교하게 하거나 버리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양적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3. 자료, 증거, 합리적인 고려를 통해 지식을 만든다. 실제로 연구자는 연구자의 관찰이나 연구참여자에 의해 측정된 검사도구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4. 연구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기술하거나 관련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하고 참인 명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이 관계에 대한 연구질문이나 가설을 설정한다.
5. 객관성은 양질의 탐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며, 연구자는 편파적이지 않도록 연구방법과 결론을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구성주의자의 세계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갖는다. 구성주의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때로는 해석주의와 결합되는)가 바로 그러한 관점이며, 전형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은 Mannheim, Berger와 Luekmann(1967)의 실재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Lincoln과 Guba(1985)의 자연주의적 탐구(*Naturalistic Inquiry*)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최근의 연구자로는 특히 Lincoln과 그의 동료들(2011), Mertens(2010), Crotty(1998)를 들 수 있다. **사회**

적 구성주의자는 개인은 자신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인 의미를 발전시키는데, 그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는 다양하고 다중적이어서, 연구자로 하여금 협소한 의미로 범주화나 개념화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게 이끈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상당히 의존한다. 연구문제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연구참여자는 상황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의미는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나 상호작용 속에 스며 있는 것을 말한다. 연구문제가 개방적일수록 연구자는 사람들의 삶에서 말하고 행하는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된다. 보통 이것의 주관적 의미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협의된다. 즉 의미가 단순히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해 그리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구성주의자 연구자들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주로 다룬다. 또한 그들은 연구참여자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자는 자신의 배경이 해석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개인적·문화적·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해석이 나온다는 사실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또는 해석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후기 실증주의에서와 같이) 이론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론이나 의미의 패턴을 귀납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성한다.

예를 들어, Crotty(1998)는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언급하였다.

1. 인간은 자신이 해석하고 있는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질적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연구참여자가 그들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2. 인간은 세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사적·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 인간은 모두 문화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상황에 뛰어들거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질적 연구자는 발견한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의해 구성된다.

3. 의미의 기본적 생성은 항상 사회적이고, 인간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의 과정은 대부분 귀납적이고,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변형적 세계관

어떤 연구자는 변형적 접근의 철학적 가정을 지지한다. 이 입장은 구조적인 법칙과 이론에 의한 후기 실증주의적 가정이 사회 내에서 소외된 개인에 맞지 않으며 권력, 사회적 정의, 차별, 억압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학자에 의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현하였다. 이 세계관의 특징에 대한 일관된 문헌은 없지만 비판적 이론가, 참여행동 연구자,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 소수 인종·민족 집단, 장애인, 토착민과 탈식민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사회동성애자 연구자 집단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변형적 학자로는 Marx, Adorno, Marcuse, Habermas, Freire가 알려져 있다(Neuman, 2009). 최근에는 Fay(1987), Heron과 Reason(1997), Kemmis와 Wilkinson(1998), Kemmis와 McTaggart(2000), Mertens(2009, 2010)의 연구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 세계관의 연구자는 구성주의자 관점이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의제를 충분히 옹호하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변형적 세계관**은 연구가 정치와 어떤 수준에서건 사회적 억압과 직면한 정치적 변화 의제와 맞물릴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Mertens, 2010). 그래서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생애, 개인이 일하는 기관, 연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위한 행동 의제를 포함한다. 나아가 권력, 불평등, 억압, 지배, 소외와 같은 일상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종종 연구의 초점이 되는 문제를 이러한 이슈 중 하나로 시작한다. 이 연구는 또한 연구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질문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연구의 참여에 대한 보상도 얻게 된다. 변형

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의식을 높이거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의제를 제안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개혁과 변화를 위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철학적 세계관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권리를 빼앗긴 집단이나 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론적 관점들은 페미니스트 관점, 인종 기반 담론, 비판이론, 동성애 이론, 장애 이론과 같은 요구되는 변화, 연구되어야 할 사람, 검증되어야 할 이슈의 그림을 구성하는 철학적 가정과 통합된다. 이 이론적 관점은 제3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비록 다양한 집단이 있으며 우리의 설명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변형적 세계관이냐 패러다임의 중요한 특성은 Mertens(2010)가 정리한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전통적으로 소외되어 온 다양한 집단의 삶과 경험의 연구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 다양한 집단에 대해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억압자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가에 대한 것과 그들이 이러한 통제에 저항하고, 도전하며, 전복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것이다.
- 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불평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대칭 권력관계를 초래하는 성, 민족, 소수인종, 장애,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계층에 기반을 둔다.
- 변형적 세계관에서의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과 연관 있다.
- 변형적 연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억압과 지배 및 권력관계의 문제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신념의 프로그램 이론을 이용한다.

실용주의적 세계관

세계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실용주의자로부터 찾을 수 있다. 실용주의는 Peirce, James, Mead와 Dewey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Cherryholmes, 1992). 또 다른 실용주의자로는 Murphy(1990), Patton(1990), Rorty(1990)가 있다. 여러 형태의 실용주

의 철학이 있지만, 세계관으로서 실용주의는 대부분 (후기 실증주의에서처럼) 선행 조건보다 행동, 상황, 결과에서 나타난다. 실용주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 적용에 관심이 있다(Patton, 1990). 방법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강조하며,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접근을 다 사용한다(Rossman & Wilson, 1985 참조). 혼합적 연구의 철학적 토대로서 Morgan(2007), Patton(1990), Tashakkori와 Teddlie(2010)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접근을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Cherryholmes(1992), Morgan(2007)과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실용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 실용주의는 철학과 실재의 어느 한 체계만을 따르지 않는다. 실용주의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양적·질적 가정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혼합적 연구를 적용한다.
- 개인 연구자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필요성과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연구방법, 기술, 절차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 실용주의자는 세계를 하나의 절대적 단일체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혼합적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예 : 양적 또는 질적)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는다.
- 진리는 시간적 산물이다. 진리란 마음 그리고 이 마음과 완전히 독립적인 실재 사이의 이원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합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사용한다.
- 실용주의 연구자는 의도된 결과, 즉 그 결과로부터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을 찾는다. 혼합적 연구자는 처음부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혼합해야 할 이유의 정당성, 즉 혼합의 목적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실용주의자는 연구가 항상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혹은 다른 여러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한다. 이런 면에서 혼합적 연구는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목표를 반영하는 이론적 시각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포함한다.
- 실용주의자는 마음속에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과 독립인 외적 세계에서 의 믿

음을 갖는다. 그러나 실용주의자는 실재와 자연의 법칙에 관한 질문에 대한 논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Cherryholmes, 1992). “그들은 단순히 주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Rorty, 1983, p. xiv).

- 따라서 실용주의는 혼합적 연구자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수집 및 분석과 함께 다양한 방법, 세계관, 가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연구설계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질적 방법, 양적 방법, 혼합적 방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선택한 각각의 방법 내에서 연구유형도 결정하게 된다. 연구설계는 연구의 설계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공하는 질적·양적·혼합적 방법 접근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탐구전략(Denzin & Lincoln, 2011)이라고 부른다. 복잡한 모델을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개인이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정교화해 온 것과 같이, 연구자에게 유용한 설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었다. 연구유형 선택은 제8장, 제9장, 제10장에서 강조하여 다룰 것이고, 설계는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여기서는 나중에 논의될 전략을 먼저 소개하고 책의 전반에 걸쳐 연구의 예를 인용할 것이다.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양적 설계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쳐 양적 연구와 관련된 탐구전략들은 후기 실증주의적 세계관을 야기하였고, 주로 심리학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진실함 연구, 그리

표 1.2 대안적 연구설계

양적 설계	질적 설계	혼합적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설계 • 비실험설계 (예 : 조사연구) • 종단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러티브 연구 • 현상학적 연구 • 근거이론 • 민족지학적 연구 •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렴적 • 설명적 순차 • 탐색적 순차 • 핵심설계를 내포한 복잡한 설계

고 준실험연구라고 불리는 덜 엄격한 의미에서의 실험연구를 포함한다(Campbell & Stanley, 1963 참조). 다른 실험연구 설계로는 실험처치를 한 사람 또는 소수 인원에게 여러 번 하는 응용행동분석 또는 단일대상 실험연구가 있다(Cooper, Heron, & Heward, 2007; Neuman & McCormick, 1995). 비실험 양적 연구 중 하나인 원인비교 연구는 연구자가 이미 일어난 원인(또는 독립변인)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실험 형태의 연구인 상관관계 설계는 연구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인이나 점수들 사이의 정도나 연관성(또는 관계)을 서술하고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다(Creswell, 2012). 이 설계들은 구조방정식 모델, 위계선형 모델, 로지스틱 회귀의 기법에서 찾을 수 있는 변인들 사이의 매우 복잡한 관계를 정교화하는 것이다. 최근에 양적 전략은 많은 변인과 처치[예 : 요인설계(factorial design), 반복측정 설계(repeated measure design)]를 갖는 복잡한 실험을 다루어 왔다. 설계는 종종 아이디어와 경향성의 발달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에 걸친 종단적 자료 수집을 채택한다. 또한 인과경로와 확인된 다중변인의 장점을 결합하는 정교한 구조방정식 모델도 양적 전략에 포함된다. 이러한 양적 접근을 모두 논의하기보다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의 두 가지 설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 **조사연구**(survey research)는 모집단의 표본을 연구함으로써 모집단의 경향, 태도, 의견에 대한 양적 또는 수량적 설명을 제공한다. 조사연구는 표본에서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questionnaire)나 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하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포함한다(Fowler, 2008).
-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는 어떤 특별한 처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영향은 한 집단에는 특정 처치를 하고 다른 집단에는 처치를 하지 않은 다음 두 집단에서 어떤 점수의 결과가 나오는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된다. 실험연구는 처치 조건에 피험자를 무선 할당(random assignment)하는 진실험 연구와 비무선 할당을 사용하는 준실험 연구 모두를 포함한다(Keppel, 1991). 단일대상 설계는 준실험연구에 속한다.

질적 설계

질적 연구는 1990년대에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접근방법의 수나 유형이 좀 더 명료화되어 왔다. 질적 연구의 역사적 기원은 인류학, 사회학, 인문학,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유형을 요약한 책과 완벽한 절차는 현재 구체적인 질적 탐구 접근에 유용하다(Creswell & Poth, 2018). 예를 들면,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연구자가 수행하는 방법을 구성하였다. Moustakas(1994)는 현상학적 방법의 철학적 원리와 절차를 논의하였고, Charmaz(2006), Corbin과 Strauss(2007, 2015), Strauss와 Corbin(1990, 1998)은 근거이론의 절차를 설명하였다. Fetterman(2010), Wolcott(2008)는 민족지학적 연구의 절차와 전략, 여러 가지 양상을 요약하였고, Stake(1995)와 Yin(2009, 2012, 2014)은 사례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책에서는 참여적 실행연구(Kemmis & McTaggart, 2000), 담화분석(Cheek, 2004), 언급되지 않은 기타 연구와 같은 접근도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용적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명한다.

-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는 연구자가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문학의 탐구설계이다(Riessman, 2008).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에 의해 이야기식 연대기로 종종 재진술된다. 종종 마지막에는 개인의 삶으로부터 나온 관점과 연구자의 삶으로부터 나온 관점이 협동적인 이야기로 결합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묘사함으로써 현상에 관련된 개인의 생애 경험을 서술하는 철학과 심리학으로부터 비롯된 탐구설계이다. 이 서술은 현상을 모두 경험한 여러 개인의 중요한 경험들로 끝을 맺는다. 이 설계는 강한 철학적 토대를 가지며 전형적으로 면접을 수행하게 된다(Giorgi, 2009; Moustakas, 1994).
-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근거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의 일반적·추상적 이론을 추출하는 사회학으로부터 비롯된 탐구설계이다. 근거이론의 과정에는 다단계에 걸쳐 자료 수집하기와 정보의 범